

皮日休 小品文의 特徵

南 哲 鎮*

<目 次>

I. 序 論	2. 民本思想의 반영
II. 本 論	3. 形式的 特徵
1. 支配階層에 대한 大膽한 諷刺	III. 結 論

I. 序 論

中國 散文史上 晚唐은 古文運動의 퇴조기로 駢文이 다시 흥기하였고 詩·文을 막론하고 彫琢과 修辭에 치중하는 浮艷한 文風이 재개된 시기이다. 그것은 개혁이나 변화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晚唐의 혼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소위 세기말적 唯美主義風의 대두라 볼 수 있을 것이다. 葛曉音은 《唐宋散文》에서 晚唐의 散文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晚唐時期, 古文衰落, 駢文復興. 這兩種文體雖然各有獨立存在的用途和價值, 但因古文運動明確以反對駢文爲目的, 所以實際上是互爲消長的. 晚唐時政治愈趨腐敗, 宦官專權, 朝廷黨爭, 藩鎮強大, 已成爲唐王朝致命的痼疾. 文人們在憂時憫亂, 感傷身世之餘, 轉而以沉迷聲色自我麻醉. 愛好華艷纖巧的風尚重又在文壇上流行起來. 駢文的復興與這一背景有關(晚唐時期 古文이 衰落하

* 嶺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任講師

고 駢文이 부흥을 했다. 이 두가지 文體는 비록 각기 독립적인 용도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古文運動은 분명 駢文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사실상 상호 간에 번성과 쇠락이 있는 것이다. 晚唐시기 정치는 점차 부패하였고 宦官의 專橫, 朝廷의 黨爭 그리고 藩鎮의 강대함은 이미 唐 왕조의 치명적인 고질이었다. 文人들은 시대를 근심하고 혼란을 걱정하며 신세를 슬퍼한 나머지 聲色에 미혹되고 자아를 마취하는데로 전향하였다. 華艷하고 섬세함을 애호하는 풍조가 다시 문단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駢文의 부흥은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다.)¹⁾

이렇듯 晚唐 시기는 극도로 혼란한 정치사회적 영향 아래 唯美主義 풍조가 문단을 지배하고 古文도 中唐時期와 달리 그 세력이 매우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문계에서의 형식주의는 齊梁시대처럼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는 없었다. 특히 黃巢起義를 전후하여 산문계의 일각에서는 시대의 병폐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지적하는 소위 小品文이 흥기하여 빛을 발하였고 일찍이 魯迅은 <小品文의 危機>에서 晚唐의 小品을 극찬한 바 있다.²⁾ 魯迅이 언급한 晚唐 小品文의 3대 작가는 皮日休, 陸龜蒙, 羅隱이다. 이들 3인은 명실공히 晚唐 산문계를 대표하는 작가로 비록 문단상의 지위나 영향력 면에서는 韓愈나 柳宗元에 필적하지 못하지만 唯美主義가 횡행할 때 簡明한 古文으로 현실을 극명히 반영하고 문학적 가치가 높은 산문을 창작했다는 점에서 그들 역시 散文史的으로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 고대 산문의 연구는 단연 韓愈와 柳宗元을 필두로 하는

- 1) 葛曉音, 《唐宋散文》, 國文天地(臺北), 1990, 59쪽.
- 2) 唐末詩風衰落, 而小品放了光輝. 但羅隱的《讒書》, 幾乎全部是抗爭和憤激之談, 皮日休和陸龜蒙自己爲隱士, 別人也稱之爲隱士, 而看他們在《皮子文藪》和《笠澤叢書》中的小品文, 竝沒有忘記天下. 正是一塌糊塗的泥塘里的光彩和鋒芒.(唐末詩風이 쇠락하자 小品이 빛을 발하였다. 그러나 羅隱의 《讒書》는 거의 대부분이 항쟁과 격분의 이야기이며, 皮日休와 陸龜蒙은 스스로 隱士라 하였고 다른 이들도 그들을 은사라 했으나 그들의 《皮子文藪》와 《笠澤叢書》 가운데 小品文을 보면 결코 천하의 일을 잊은 적이 없다. 바로 뒤죽박죽된 수령 속에서의 광채와 예리함인 것이다.) 魯迅, 《南腔北調集·小品文的危機》

소위 唐宋八大家나 혹은 古文運動 자체에 대한 연구가 위주가 되어왔다. 그래서 국내의 산문학계에서는 연구범위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기존의 연구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唐宋散文이 중국 고대 산문의 중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다가 散文研究史가 아직은 일천하여 연구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심화되고 축적된 성과가 없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古代散文史上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면서 지금까지 연구가 소홀했던 晚唐시기의 대표적 산문가 皮日休의 小品文을 고찰하고자 한다. 皮日休의 小品文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小品文이 皮日休의 산문을 대표하며 또한 晚唐시기 유희주의에 반기를 들고 예리한 통찰력과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예술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룩한 분야가 바로 小品文이기 때문이다.³⁾ 그러므로 皮日休 小品文에 대한 고찰은 皮日休 문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유희주의가 극성이었던 晚唐시기 산문의 또 다른 일면을 통해 唐代 산문 전체를 재조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

3) 小品이란 명칭은 《世說新語》文學編에 처음 등장하는데 원래 佛經의 簡略本을 칭한 말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대체로 작가 개인의 사상이나 일시적인 감정, 생활 가운데의 雜感 등을 별다른 작법상의 규제없이 자유롭게 쓴 短形의 산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근들어 小品은 文體的 개념이라기 보다 특정 풍격과 심미 특징을 지닌 문학의 부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주장을 한 논자와 논저로는 陳少棠의 《晚明小品論析》(波文書籍, 1981), 張德建의 <小品的突破與局限>(從文體演變的角度看晚明小品的價值)(《中國文學研究》, 2000, 제4기) 등이 있다) 그런데 현대문학에서는 소품을 현대 산문의 하위 諸文體 가운데 한 文體의 명칭으로 삼고 있다. 林非는 《中國現代散文史稿》에서 현대 산문을 雜文, 報告文學, 小品 등으로 나누고 의론성에 치중하는 산문을 잡문, 서사성에 치중하는 산문을 보고문학 그리고 서정과 서사를 병행하는 산문을 소품이라고 규정하였다. (林非 著 김혜준 譯 《중국현대산문사》, 1993, 고려원, 제15쪽) 이렇듯 현대 문학에서의 소품은 고대 문학에서 말하는 소품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되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간혹 소품에 韻文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한 문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흔히 小品이란 용어를 볼 수 는데 小品文, 小品散文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세기 이후 등장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小品과 小品文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本論

皮日休는 襄陽(現 湖北省 襄樊市)사람으로 字는 逸少(후에 襲美로 바꿈)이며 일찍이 鹿門山(現 湖北省 襄陽縣 東南部)에 거하여 鹿門子라 불리기도 했다. 그의 정확한 생졸년은 未詳이나 대체로 834~883년 사이를 생존 시기로 본다. 이때는 이미 생활 터전을 완전히 잃은 백성들이 각종 民亂과 兵亂에 참가하여 唐 제국이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이다. 皮日休는 咸通 8년(867) 進士에 급제하였으나 黃巢起義에 참가하여 黃巢 정부에서 翰林學士까지 보낸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전국 각지를 유랑하며 광범위한 사회와 민생의 疾苦를 친히 경험했고 기본적으로 문학이 經世濟民과 정치사회 教化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儒家的 문학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인생 경험과 사상들은 皮日休 小品文 창작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

현재까지 남아있는 皮日休의 著作으로는 《皮子文藪》와 《松陵集》이 있고 《全唐文》과 《全唐詩》에 약간의 작품이 전한다.⁵⁾ 《松陵集》은 陸龜蒙과의 唱和詩集이며 지금 볼 수 있는 皮日休의 산문들은 대부분 《皮子文藪》에 수록되어 있다. 本書는 皮日休가 32세 즈음 되던 海咸通 7년(866) 엮은 것이다. 원래 科擧의 溫卷用으로 엮은 것인데도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풍자하는데 조금도 주저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4) 皮日休 思想에 관한 연구로는 黃瑛喜의 <皮日休의 文學觀>(《中國語文論叢》 8집, 1995년 8월) 및 <皮日休 思想의 研究>(《中國語文論叢》 9집, 1995년 12월) 등이 있다. 그리고 田啓文은 《晚唐諷刺小品之風貌》에서 皮日休의 가장 중요한 문학사상으로 “文與道結合”을 들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經世教化의 기능을 發揚하기 위한 것 이라고 했다. 田啓文 《晚唐諷刺小品之風貌》, 2004, 文津出版社(臺北), 92-96쪽 참고.

5) 《鹿門子》란 책도 있는데 이것은 원래 《皮子文藪》卷9의 <鹿門隱書> 60편을 모아 단행본화 한 것이므로 별도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점을 통해 우리는 皮日休의 성품과 적극적인 현실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신랄한 풍자는 晚唐 小品文의 전반적인 특징이며 皮日休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풍자성이 짙은 晚唐의 소품을 보통 諷刺小品이라 칭한다. 그러나 모든 작가들이 친편일률적인 작품을 창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皮日休의 풍자소품과 陸龜蒙 및 羅隱의 풍자소품들 상호 간에 차이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晚唐의 小品文에 대한 연구 자체가 드문 것은 물론 작가별 작품의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도 매우 드물다. 晚唐 小品文의 특징을 고찰함은 晚唐 小品文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晚唐의 대표적인 小品文 작가인 皮日休의 小品文을 대상으로하여 그 내용과 사상 및 형식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支配階層에 대한 大膽한 諷刺.

皮日休 小品文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배계층의 부조리를 질책하고 비판하는 작품이 많다는 것인데 그 대상은 일반관리로부터 최고 통치계급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특히 최고 통치자인 황제에게 까지 서슴지 않고 신랄한 풍자를 가하는 대담한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것은 皮日休가 당시의 모순과 혼란상에 대해 분개하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지배계층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배계층을 강도 높게 비판한 小品文에 대한 고찰은 皮日休 소품의 특징이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말 할 수 있다. 그럼 우선 관리들의 문제점들을 질책한 작품들을 살펴보자.

古之官人也, 以天下爲己累, 故己憂之; 今之官人也, 以己爲天下累, 故人憂之. (옛 관리는 천하를 자신이 근심하는 바로 여기므로 스스로 천하를 걱정한다. 오늘날의 관리들은 자신의 일을 세상이 근심해줘야 할 것으로 여기므로 천하 사람들이 그들을 걱정한다.)⁶⁾

6) 《皮子文藪》卷九 <鹿門隱書>

麟鳳, 裨於祥瑞也; 蛟龍, 裨於潤澤也; 昆蟲, 裨於地氣也; 云物, 裨于天候也, ……故紆大君之組紱, 食生人之膏血, 苟不仁而位, 是不裨於祿食也, 況能裨於天地乎? 吾乃知是禽獸昆蟲雲物不竊於天地之覆幬也. (기린과 봉황은 상서로움을 돕고 蛟龍은 윤택함에 도움을 주며 곤충은 땅의 기운을 도와주며 구름은 하늘의 기후를 돕는다. ……그러므로 군왕의 인끈을 졸라매고 백성의 膏血을 빨아먹으며 不仁함으로 관직에 있는 자는 봉록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물며 천지를 도울 수 있겠는가. 나는 한편으로 이들 금수, 곤충, 구름이 천지가 은혜를 베푸는데 흠집이 없음을 알겠다.)⁷⁾

吏不與姦罔期, 而姦罔自至. 賈豎不與不仁期, 而不仁自至. 嗚呼! 吏非被重刑, 不知姦罔之喪已. 賈豎非遭極禍, 不知不仁之害躬也. 夫易化而善者, 齊民也. 唯吏與賈豎, 難哉! 人之肆其志者, 其如後患何?(관리는 간교, 欺罔과 약속하지 않아도 간교와 欺罔이 저절로 찾아오고 장사꾼은 不仁和 약속하지 않아도 不仁이 저절로 찾아온다. 아! 관리가 重刑을 당하지 않고는 간교와 기망이 자신을 망침을 알지 못하고 장사꾼이 극도의 禍를 당하지 않고는 不仁함이 자신을 해침을 모른다. 무릇 쉽게 교화되어 좋하게 되는 자는 平民들이다. 오직 관리와 장사꾼들만이 어렵다. 사람이 그 뜻을 방자히 하면 그 후환이 어떨까?)⁸⁾

古之決獄, 得民情也, 哀; 今之決獄, 得民情也, 喜. 哀之者, 哀其化之不行; 喜之者, 喜其賞之必至. (옛날의 訟事 판결은 民情을 얻고 슬퍼했으나 오늘날의 송사 판결은 民情을 얻고 기뻐한다. 슬퍼하는 것은 教化가 행하여지지 못함을 슬퍼함이고 기뻐함은 賞이 반드시 내려질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⁹⁾

상기 작품들은 <鹿門隱書>에 수록된 작품들로, 전반적으로 편폭이 짧은 점과 표현과 내용이 개괄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관리가 된 자의 본문은 백성이 생업에 충실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혼란한 시기 부패한 관리들은 오직 사리

7) 上同

8) 上同

9) 上同

사육에만 정신이 팔려있을 뿐 백성을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첫 번째 예는 옛날의 관리들 즉 비람직한 牧民官과 당시의 관리를 비교함에 관리 본연의 의무와 백성의 수혜 관계가 전도되었음을 통해 唐末 官界의 부패상을 寸鐵殺人的으로 드러내었다. 관리란 위로는 왕을 모시고 보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생업에 전념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두 번째 예에서는 당시의 관리들이 위로 군왕에게 짐이 되고 아래로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급급함을 형상적으로 표현했는데 마치 毛骨이 竦然 하듯 하며 결국 이들은 미물이나 무생물 보다 더 못하다는 식의 풍자를 가하였다. 세 번째 예는 상업에 종사하는 자를 천시하는 사상적, 시대적 한계가 보이기는 하지만 관리들의 부도덕함과 쉽게 교화되기 어려운 사악한 심성을 잘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중국에는 큰 화를 당하리라 경고하였다. 마지막 예는 앞의 세가지 예가 당시 관리들에게 만연한 전반적인 부패상을 개괄적으로 표현해 낸 것과는 달리 訟事라는 특정 주제를 통해 관리 집단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古今 관리의 상반된 태도와 모습의 비교를 통해 본연의 임무를 잊고 백성이야 어찌되든 자신의 사육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관리의 그릇된 행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예 역시 특정 문제를 거론했다가 보다는 당시 관리들의 부도덕하고 사리사욕에만 급급하는 弊風을 형상적으로 드러냈다고 봄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처럼 皮日休는 관리들의 부패상을 초단편의 문장을 통해 신랄적으로 고발하였는데, 비록 몇 자되지는 않지만 본분을 망각한 관리들의 사악한 행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데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과연 40여자에 불과한 짧은 문구를 하나의 小品文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즉흥적 감흥이나 견해를 문학적 필치를 빌어 짧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小品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祝癘疾文>은 상기 예와는 달리 관리에 대한 비판과 질책들을 체계적으로 綜述한 작품이다.

……癘乎! 癘乎! 有事君不盡節, 事親不盡孝, 出爲叛臣, 入爲逆子, 天未降刑

尙或竊生, 爾宜癘之! 有專祿恃威, 僭物行機, 上弄國權, 下戲民命, 天未降刑, 尙或竊生, 爾宜癘之! 有賣交取祿, 諂交結族, 一言不善, 禍發如鐵, 天未降刑, 尙或竊生, 爾宜癘之! 美曼之色, 媚於君側, 巧笑未足, 已亡于國, 天未降刑, 尙或竊生, 爾宜癘之! 柔佞之言, 惑于君前, 委順未足, 國步移焉, 天未降刑, 尙或竊生, 爾宜癘之! 四星之位, 奉于紫宸, 蕭牆禍起, 帝座蒙塵, 天未降刑, 尙或竊生, 爾宜癘之! 見災幸久, 聞禍樂成, 含羞冒貴, 忍垢貪榮, 天未降刑, 尙或竊生, 爾宜癘之!……(학질야! 학질야! 君主를 섬김에 節義를 다하지 않고 부모를 섬김에 효를 다하지 않으며 나가서는 반역의 신하요 들어와서는 불효자인데 하늘이 아직 형벌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삶을 흠치고 있다면 네가 마땅히 학질에 걸리도록 하여라. 祿俸을 강점하고 권세에 의지하고 기회를 잡아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꾸미고 위로는 國權을 농단하고 아래로는 民命을 희학질하는데 하늘이 아직 형벌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삶을 흠치고 있다면 네가 마땅히 학질에 걸리도록 하여라. 商術로 봉록을 취득하고 아침으로 私黨을 결성하고 한마디 선하지 못함으로 禍가 신속히 발생하는데 하늘이 아직 형벌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삶을 흠치고 있다면 네가 마땅히 학질에 걸리도록 하여라. 아름다운 얼굴로 군주 곁에서 아침하고 간사한 웃음으로도 부족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도 하늘이 아직 형벌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삶을 흠치고 있다면 네가 마땅히 학질에 걸리도록 하여라. 간드러지게 아침하는 말로 군주 앞에서 미혹시키고 순리를 내팽개침에도 부족하여 국가의 운명을 악화시키는데 하늘이 아직 형벌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삶을 흠치고 있다면 네가 마땅히 학질에 걸리도록 하여라. 신하의 지위로 황제를 모심에 궁정 변란이 일어나 황제가 실각하는데도 하늘이 아직 형벌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삶을 흠치고 있다면 네가 마땅히 학질에 걸리도록 하여라. 災難을 보고 오래가길 바라고 禍를 듣고도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수치를 머금고 부귀를 무릅쓰고 더러움을 감내하며 영화로움을 탐내는데 하늘이 아직 형벌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삶을 흠치고 있다면 네가 마땅히 학질에 걸리도록 하여라.)¹⁰⁾

<祝癘疾文>은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학질의 지독한 病症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그러한 학질이 기왕에 인간

10) 《皮子文藪》卷五 <祝癘疾文>

들에게 걸릴거면 약이나 침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사악한 인간들에게 내려져 인간사회의 재앙이 소멸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은 축문의 서문이라 볼 수 있는데 상기 예시문은 세 번째 단락으로 축문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서문에서 말한 인간사회의 재앙을 야기시키는, 약이나 침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사악한 인간들이란 바로 부패한 관료들을 지칭함이 세 번째 단락에서 드러났다. 본 작품에서 관리의 타락상은 크게 일곱가지로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君主를 제대로 섬기지 못함에서부터 賣官賣職, 黨派, 權力의 진횡, 民命의 희생 그리고 심지어 황제의 실각까지 官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폐를 망라하고 있는데 그만큼 당시 관료계가 극도로 부패해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표현과 내용은 역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기 보다는 개괄적이다. 이것은 결국 皮日休가 여러 구체적인 면모를 보고 본질을 추출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 핵심되는 측면을 적절하게 부각시켰기에 제시된 내용들이 추상적이거나 공허하게 들리지 않고 충분히 공감을 자아내도록 한다. 다음은 <祝禱疾文>의 마지막 단락이다.

癘乎! 癘乎! 爾目不盲, 爾耳不聾, 如向來所陳, 奚不禍於其躬! 仁者必有厄, 義者必有窮, 見仁義而勿癘, 遇姦佞而肆凶, 非唯去乎物患, 抑亦代乎天功. 癘乎! 癘乎! 苟依吾言而若是, 吾將達爾於帝聰!(학질아! 학질아! 네 눈이 멀지 않고 네 귀가 먹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열거한 자들이 어찌 그 몸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면인가? 仁者는 반드시 재앙이 오고 의로운 자는 반드시 곤궁함이 있다. 仁義를 봄에는 질병을 주지 말고 간사와 아침을 만남에 너의 흉악함을 마음껏 한다면 (이는) 단지 만물의 患難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功績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학질아! 학질아! 만약 나의 말을 따라 그렇게한다면 나는 너의 일을 天帝의 귀에 이르게 할 것이다.)¹¹⁾

관리들의 부패가 만연한 봉건 왕조 말기 상황에서는 善惡이 顛倒 되어 仁者와 義로운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고 오히려 사악한 자들이

11) 上同

특세하는 상황이 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고 학질이 간사와 아침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퍼져 환난을 제거하라는 작가의 희망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皮日休는 학질이라는 질병을 主觀을 지닌 존재로 의인화시켜 관리들의 부패를 풍자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 구상과 표현이 다소 해학적으로 보이나 비현실적인 상상을 통해 자신의 염원을 표출한 것은 결국 官界 폐단의 一掃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 상황의 반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여 국가의 혼란이 야기된 데는 관리들의 책임과 함께 관리들을 등용하여 그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최고통치자의 책임도 매우 크다. 물론 晚唐의 구조적인 모순과 回生不能의 상황이 최고 통치자인 황제로 하여금 治國의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앗아 갔다고 볼 수도 있으나 晚唐 황제들의 사치와 타락은 晚唐의 혼란을 가일층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대 봉건 왕조에서 황제는 治國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황제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治亂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亂世의 문인들은 늘 황제의 역할 부재를 아쉬워했었다. 그러나 황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포문을 연 경우는 매우 드물다. 皮日休의 小品文에는 황제에 대한 대담한 풍자가 보이는데 이점은 皮日休 문학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金貝珠璣，非能言而利物者也。至夫有國者，寶之甚乎賢，惜之過乎聖，如失道而有亂，國且輸人，況夫金貝珠璣哉？(금은보화는 세상에 이로움이 되는 물건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통치자가 賢士보다 보물을 더 보배로 여기고, 聖人보다 보물을 더 아낀다. 만약 道를 잃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조차 남에게 넘어가는데 하물며 금은보화 따위야?)¹²⁾

或曰：“聖人見一善必汲汲慕之。夫丹朱，商均雖曰不肖，豈便毒於豺虎哉？何其嗣之遠也。且善足以保身，不足以保天下。”噫！丹朱，商均苟非堯舜之子，一身且不保，況天下哉？(혹자가 말하길 “성인은 선을 한번 보면 반드시 그

12) 《文叢》卷九 <鹿門隱書>

것을 따르는데 급급하다. 무릇 丹朱와 商均은 비록 不肖하다 말하지만 어찌 虎豹보다야 더 심하겠는가? 어찌 그 후대가 저토록 장구하겠는가? 게다가 善함은 保身에는 족하나 天下를 지키는데는 부족하다.” 아! 丹朱와 商均이 만약 堯舜의 자식이 아니었다면 제 한몸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니 하물며 天下는 어찌되었겠는가?)¹³⁾

皮子嘗謂心爲己帝, 耳目爲輔相, 四支爲諸侯. 己帝苟不德, 則輔相叛, 諸侯亂. 古之人, 失天下, 喪家國者, 良由是也. 帝身且不德, 能帝天下乎? 能主家國乎?(내 일찍이 마음은 자신의 황제요, 耳目은 보좌하는 재상이며 四肢는 제후로 삼는다고 했었다. 자신의 황제가 不德하면 재상이 반란을 일으키고 제후들이 난동을 부린다. 고인들 가운데 천하를 잃고, 나라를 잃은 자는 확실히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다. 황제 스스로가 부덕한데 능히 천하의 황제가 될 수 있겠는가? 능히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¹⁴⁾

司馬光是 《資治通鑑》에서는 懿宗과 僖宗 시기의 총체적 不治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개술한 바 있다. “自懿宗以來, 奢侈日甚, 用兵不息, 賦斂愈急. 關東連年水旱, 州縣不以實聞, 上下上蒙, 百姓流浮, 無所控訴, 相聚爲盜, 所在蜂起.”(懿宗 이래 사치는 날로 심해지고 병사의 일으킴이 쉴 날이 없으며 세금은 점점 더 가혹해졌다. 關東에는 연이어 홍수와 한발이 발생했으나 州縣에서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니 上下가 서로 속이고 백성은 이리저리 유랑하다 餓死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서로 모여 盜賊이 되어 蜂起하였다.)¹⁵⁾ 희생 불능의 상태로 빠진 당나라 말기의 통치자는 政事에는 뒷전인 채 극도의 방탕과 사치를 즐겼으니 賢士나 聖人 보다 보물을 더 중시했을 것이다. 첫 번째 글은 바로 財貨에 눈이 어두운 통치자가 우수한 인재보다 금은보화를 더 중시함을 비판한 것이다. 丹朱와 商均은 각각 堯와 舜의 자식이었으나 堯와 舜은 그들이 不肖하다고 여겼기에 각각 舜과 禹에게 황제의 자리를 讓位하였다. 丹朱와 商均은 기실 그렇게

13) 上同

14) 《皮子文藪》卷六 <六箴序>

15) 《資治通鑑》卷252 僖宗乾符元年十二月.

사악한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고 한편 천하를 통치할 정도는 못되었기에 적임자에게 양위함으로써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다. 즉 비록 선하다하더라도 천하를 통치하기에는 부족한데 虎豹와 같이 사악한 사람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 일국의 政事를 관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후논리에 의하면 나라가 폐망에 이름은 물론 최고통치자 스스로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것이다. 文中에 나오는 虎豹는 당시 최고 통치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예시문의 전체 요지는 결국 최고통치자에게 폐망은 물론 一身의 保身도 힘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의 예는 마음(心)과 耳目 및 四肢를 각각 황제, 재상, 신하에 비유하여 耳目과 四肢가 마음에 의해 조정되듯이 황제가 德을 갖추지 못하면 재상과 제후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고 자고이래로 모든 왕조가 폐망한 것은 결국 황제가 부덕하기 때문이고 부덕한 자는 황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역시 현실의 황제를 엄두에 둔 진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皮日休는 황제가 부덕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결과는 바로 국가 폐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혼란하고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근본 책임이 황제에게 있다는 것이다. 晚唐의 혼란에 대한 책임이 황제에게 있다는 생각은 바로 皮日休로 하여금 최고 통치자인 황제를 풍자하는 많은 小品文을 창작하게 한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2. 民本思想의 반영

前節에서 언급하였듯이 皮日休가 황제나 지배계층 대해 신랄한 풍자를 가한 것은 당시 혼란한 政局의 책임이 지배계층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皮日休가 그러한 생각을 가진 더욱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民本思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皮日休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며 관리들이나 황제 등의 소위 지배계층은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정치인

나 행정관료 등 국가의 모든 관리들은 당연히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나 晚唐이라는 고대 봉건사회에서 민본주의 사상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皮日休가 그의 小品文에서 주장한 민본주의 관련 주장들은 실로 대담하고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우선 天下를 통치하는 자는 무력이나 강폭이 아닌 民心에 의해 천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古之取天下也以民心, 今之取天下也以民命. 唐, 虞尚仁, 天下之民從而帝之. 不曰取天下以民心者乎? 漢, 魏尚權, 驅赤子於利刃之下, 爭寸土於百戰之內, 由士爲諸侯, 由諸侯爲天子, 非兵不能威, 非戰不能服, 不曰取天下以民命者乎? 由是編之爲術, 術愈精而殺人愈多, 法益切而害物益甚. 嗚呼! 其亦不仁矣. 蚩蚩之類, 不敢惜死者, 上懼乎刑, 次貪乎賞. 民之於君, 由子也, 何異乎父欲殺其子, 先給以威, 後陷以利哉? 孟子曰: “我善爲陣, 我善爲戰, 大罪也!” 使後之君子於民有是者, 雖不得土, 吾以爲猶土焉. (옛날 천하의 취함은 民心에 의했었는데 오늘날 천하를 취함은 백성의 목숨으로 얻는다. 堯舜은 仁을崇尚하여 천하의 백성이 따랐고 그들을 황제로 삼았다. 천하를 취함에 민심으로써 하였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漢과 魏는 권력을 숭상하여 백성을 예리한 칼 아래로 내몰았고 백번 전쟁함으로 한뼘의 땅을 다투었다. 토에서 제후가 되고 제후에서 천자가 되었으니 兵이 아니면 위엄을 세울 수 없었고 전쟁이 아니면 복종시킬 수 없었다. 천하를 얻음이 백성의 목숨으로 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로써 兵書가 편찬되었고 병서가 精微할수록 살인은 점점 많아졌고 兵法이 매서울수록 만물의 피해는 더욱 심했다. 아! 이 역시 不仁함이다. 백성들은 감히 죽은 자를 애석해하지 못하고 위로 刑罰을 두려워하고 다음으로는 賞을 탐했다. 군주에 있어서 백성이란 자식과도 같다. 어찌 그 자식을 죽이고자 하고 먼저 기만하여 위엄을 세우고 다음으로 이득을 도모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軍陣을 잘 펼치고 전쟁을 잘한다 함은 큰 죄이다.”라고 했다. 가령 후세의 군주 가운데 백성에게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비록 땅을 얻지 못했다하더라도 나는 땅을 소유했다고 여기겠다.)¹⁶⁾

16) 《皮子文藪》卷七 <讀司馬法>

본 작품은 皮日休가 고대의 병서인 《司馬法》을 읽은 후 쓴 일종의 독후감이다.¹⁷⁾ 고대의 聖王 堯舜은 仁을 숭상하였기에 백성이 그들을 따랐고 백성들이 그들을 제왕으로 삼았다. 이처럼 고대의 군주는 민심에 의해 되는 것이다. 그러나 漢魏 이후의 군주는 모두 무력으로 갈취한 것이다. 士에서 諸侯가 되고 諸侯에서 天子가 됨은 모두 武力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수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군주의 자리는 백성의 목숨으로 취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본 작품은 皮日休가 晚唐시기 藩鎮의 割據와 각종 民亂 등을 염두에 두고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반란세력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제왕의 자리란 仁治를 통한 백성의 지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며 군주란 응당 백성을 자식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민본주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堯爲諸侯，非求爲天子也，摯之民用之。舜爲鄒民，非求爲天子也，堯之民用之。或曰：“摯善，亦堯乎？”曰：“亦堯而已矣。”曰：“摯與堯，其民俱捨之，則善惡奚分邪？”曰：“摯固不仁矣，堯固仁矣，堯仁如是，民尚慕舜，況有君惡於摯，君道不如堯，焉得民性哉”故曰：“聖人不求用而民用之，求用而聖人不用之。”曰：“若是，則孔子奚不用魯？”曰：“用之則魯化，不用之天下奚化？”堯는 제후 시절 天子가 되기를 구한 적이 없지만 摯(古代 部落의 首領)의 백성이 그를 임용했다. 舜은 흠아비 시절 천자가 되기를 구한 적이 없지만 堯의 백성이 그를 임용했다. 혹자가 말하기를 “摯가 좋았어도 堯가 임용 되었을까요?” 대답하기를 “역시 堯가 임용되었을 것이다.” 말하기를 “摯와 堯는 모두 백성들이 배척했는데 善惡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말하기를 “摯는 실로 不仁했고 堯는 실로 仁했다. 堯가 이처럼 仁했는데도 백성들은 舜을 仰慕했으니 하물며 군주의 악함이 摯보다 더 심하고 군주의 道가 堯만하지 못하다면 어찌 백성의 쓰임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말하기를 “聖人は 임용됨을 원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그를 임용하며 任用을 구하는 자가 있어도 聖人は 그를 임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말하기

17) 《司馬法》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의 兵書 가운데 하나이다. 春秋時代 齊國大夫 司馬穰苴는 兵法에 매우 능했는데 齊威王의 명령으로 그의 兵法을 추론하여 쓴 《司馬穰苴兵法》을 《司馬法》이라 簡稱한다.

를 “그렇다면 孔子는 왜 魯나라에서 임용되지 못했는가?” 대답하기를 “그를 임용했다면 魯나라만이 교화되었을 것인데 그를 (천하에서) 임용하지 않았다면 天下가 어찌 교화되었겠는가?”¹⁸⁾

본 작품은 임용에 대한 근원을 밝힌 <原用>이다. 본 작품의 주제는 군주의 자리가 백성에 의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原用에서 用은 “누구에 의해 임용된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皮日休는, 군주의 자리는 하늘에 의해 내려진다는 식의 봉건 전제시대, 지배계층이 날조한 자신들의 지배에 대한 확고부동한 당위적 논리를 완전히 뒤엎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君主의 임용을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일반 백성들이라고 했다. 한편 堯는 고대의 聖君인데도 결국 백성에 의해 왕좌가 舜에게 양위되었는데 만약 仁과 道가 堯보다 더 못한 군주라면 당연히 제위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晚唐의 昏君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 볼 수 있다. 즉 君主란 백성의 지지를 얻어 백성에 의해 임용되는 자리이며 일단 임용이 되었더라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백성에 의해 君主의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君主는 마땅히 聖人이 되어야 하며 聖人이라면 그가 원하지 않아도 백성에 의해 君主로 추대된다고 했다. 결국 君主의 자리는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며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辭讓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聖人이 백성의 뜻에 의해 임용될 뿐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孔子가 성인인데도 魯나라에서 임용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설명인데, 孔子의 경우는 그 教化가 천하에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孔子가 일개 魯나라에서만 활약을 펼칠 작은 인물이 아니라 명실공히 천하 사람들을 교화로 이끌만한 인물이었다고 사실상 그는 천하에 임용된 天下의 帝王과 다를 바 없다고 解明하였다. 방금 언급하였듯이 본 작품은 晚唐의 不德한 皇帝들을 풍자하고 君主의 자리란 오직 백성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민본주의 사상을 표출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皮日休가 견지한 이러한 민본주의적 사상은 황제 및 최고통치 계

18) 《皮子文藪》卷三 <原用>

급을 향해 신랄하고 대담한 풍자를 가하는데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다음은 <原謗>의 全文이다.

天之利下民, 其仁至矣. 未有美於味而民不知者, 便於用而民不由者, 厚於生而民不求者. 然而暑雨亦怨之, 祁寒亦怨之, 已不善而禍及, 亦怨之; 已不儉而貧及, 亦怨之. 是民事天, 其不仁至矣. 天尚如此, 況於君乎? 況於鬼神乎? 是其怨訾恨讟徒倍於天矣. 有帝天下, 君一國者, 可不慎歟? 故堯有不慈之毀, 舜有不孝之謗. 殊不知堯慈被天下, 而不在於子; 舜孝及萬世, 乃不在於父. 嗚呼! 堯, 舜大聖也, 民且謗之. 後之王天下, 有不爲堯, 舜之行, 則民扼其吭, 捽其首, 辱而逐之, 折而族之, 不爲甚矣 (하늘이 백성에 利를 내림은 그 仁이 지극한 것이다. (하늘은) 맛있는 것을 백성이 모르도록 하고 사용의 편리함을 백성이 모르도록 하며 삶에 있어서의 운택함을 백성이 모르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백성은 무더위와 비에 하늘을 원망하며 큰 추위에 하늘을 원망하며 자신이 선하지 않아 화를 당해도 하늘을 원망하며 자신이 검소하지 않아 빈궁하게 되어도 하늘을 원망한다. 이것이 백성의 하늘 섬김이니 그것은 不仁함의 극치인 것이다. 하늘의 섬김이 이 정도이니 君主에 대해서는 어떻게는가? 귀신에 대해서는 어떻게는가? 그 원망과 질책이 하늘의 몇 배는 될 것이다. 천하에 帝王이 된 자와 一國의 왕이 된 자가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堯에게는 慈愛롭지 못하다는 誹謗이 있고 舜에게는 不孝의 誹謗이 있다. 실로 堯의 慈愛는 天下에 미치는 것이 자식에 있지 않음을 모르는 것이며 舜의 孝는 萬世에 미치는 것이 그 父親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모르는 것이다. 아! 堯와 舜은 大聖人인데도 백성들은 그를 비방했다. 후에 천하에 왕이 된 자로 堯와 舜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이 목을 조르고 머리를 움켜잡아 치욕을 보인 후 쫓아낼 것이며 족속을 참수하고도 심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¹⁹⁾

백성들이란 본시 도량이 넓지도 않고 이해심이나 참을성이 많지도 않다. 평소에 아무리 큰 혜택을 받았다하더라도 조금의 불편함에 추호의 이해심도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생의 터전이 되어주는 대자연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은 물론 堯와 舜 같은 大聖人조차 그들

19) 《皮子文藪》卷三 <原謗>

의 진정한 면모를 간과한 채 단순한 사실에 의해 비방을 일삼는다. 이것이 바로 백성의 본성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봉건시대의 사대부로서 일반 백성을 다소 폄하하는 듯한 감이 없지 않으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자신들에게 利를 가져다주는 하늘을 원망하고 大聖人인 堯와 舜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사치와 착취를 일삼는 昏君들을 어떻게 할까?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皮日休가 백성들이 그러한 군주들을 내쫓아 내는 모습을 毛骨이 悚然할 정도로 그려냄으로써 晚唐의 昏君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즉 군주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제위에 있다면 백성에 의해 강제로 폐위당 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皮日休는 군주의 등급과 폐위가 모두 추호의 인정도 발휘하지 않는 냉엄한 백성들에게 결정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군주의 제위 여부가 백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의 小品文을 통해 皮日休의 민본주의 사상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아래는 이와는 좀 다른 세금 문제를 다룬 <請行周典>의 일부이다.

日休曰：征稅者，非以率民而奉君，亦將以厲民而成其業也……“必也居不樹桑，雖勢家亦出里布。”則途無蹠丐之民矣。(세금 징수는 백성을 따르게 하여 군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면려하여 그들의 본업을 이루게 함이다. ……“만드시 받을 갈지 않는 자는 비록 세도가의 집이라도 세금을 거두라.”고 한다면 길바닥에 굶어 죽는 백성이 없을 것이다.)²⁰⁾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므로 국가의 모든 施策은 백성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역시 당연히 백성을 위한 것이며 高官이라고 해서 세금 징수를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晚唐의 현실은 어떠한가? 均田制의 붕괴로 이미 농촌이 몰락한지 오래되었지만 백성들은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지배계층의 好衣好食과 奢侈에 낭비되고 있었다. 지배계층은 나라의 주인인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본사상을 견지한 皮日休로서는 지

20) 《文叢》卷七 <請行周典>

배계층의 무능과 사치 그리고 그로인한 백성들의 착취와 꺾박에 더욱 강렬한 비판을 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며 황제를 포함한 지배계층의 존재여부는 오직 백성들의 지지에 달려있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조는 당연히 존속될 수 없다. 당나라 역시 백성들이 각종 민란에 동조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皇權의 상실은 물론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천 수백년 전의 봉건시대에 이렇듯 확고히 민본주의 사상을 견지한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대담한 민본주의 주장을 담고 있는 皮日休의 小品文 역시 文學史的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形式的 特徵

小品文의 외형적 특징은 당연히 편폭이 짧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편폭이 짧다는 것만으로 小品文을 이해하거나 정의내릴 수는 없다. 小品文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小品文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小品文은 작가의 일시적인 감흥이나 혹은 특정 事案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을 어떠한 형식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스럽게 쓴 단형의 산문이다. 다시말해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문장이며, 심사숙고하고 장시간 功을 들여 쓰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小品文의 성격들을 고려한다면 長篇보다는 短篇 쪽이 훨씬 小品文 창작에 적합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小品文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短小함은 그 내재적 성격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小品文 창작을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편폭을 짧게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小品文은 외형적으로 편폭이 짧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며 皮日休의 小品文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皮日休 小品文은 편폭이 짧은 가운데 그 長短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점은 皮日休와 함께 거론되는 晚唐의 대표적 小品文 작가인 陸龜蒙이나 羅

隱은 물론 여타 고대 小品文 작가들에게서는 찾아 보기 힘든 皮日休 小品文 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럼 皮日休의 소품집이라 할 수 있는 《鹿門子》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皮日休 小品文이 지니는 편폭의 다양성을 살펴해보겠다.

小善亂德, 小才耗道(善이 적으면 德을 어지럽히고 재능이 적으면 道를 손상시킨다.)²¹⁾

文學之於人也, 譬乎藥. 善服, 有濟. 不善服, 反爲害.(사람에 있어 문학은 藥에 비유될 수 있다. 잘 복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복용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²²⁾

潔者, 不觀其窮, 觀其富也. 慎者, 不觀其危, 觀其勢也. 苟當窮能潔, 當危能慎, 戒也, 非眞也(청렴한 자의 판단 여부는 궁할 때를 보면 안되고 그가 부귀할 때를 보아야한다. 신중한 자의 판단 여부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면 안되고 세력을 가졌을 때를 보아야 한다. 만약 궁할 때 청렴하고 위기에서 신중하다면 그것은 경계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청렴하고 신중한 것이 아니다.)²³⁾

今道有赤子, 將爲牛馬所踐, 見之者, 無問賢不肖, 皆惕惕然皆欲驅牛馬以活之, 至夫國有弱君, 室有色婦, 有謀其國, 欲其室者, 惟恨其君與夫不罹赤子之禍也. 噫! 是復何心哉?(지금 길에 간난아기가 있어 소나 말에 밟힐 위기에 처했다면 그것을 본 자는 현명하고 불초하고를 막론하고 모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소나 말을 쫓아내어 아기를 구할 것이다. 나라에 어린 군주가 있고 집에 아름다운 부인이 있으면 그 나라를 도모하고 그 집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오직 그 군주와 남편이 그 간난아기와 같은 화가 닥치지 않는 것을 한탄한다. 아! 이 두 마음은 어찌된 일인가?)²⁴⁾

21) 《皮子文藪》卷九 <鹿門隱書>

22) 《文藪》卷九 <鹿門隱書>

23) 上同

24) 上同

或問：“君子之道，何如則可以常行矣？”曰：“去四蔽，用四正，則可以常行矣。”曰：“何以言之？”“見賢不能親，聞義不能服，當亂不能正，當利不能節，此之謂四蔽。道不正不言，禮不正不行，文不正不修，人不正不見，此之謂四正。”(후자가 묻기를 “君자의 道는 어떻게 하면 늘 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기를 “四蔽를 버리고 四正을 쓰면 항상 행할 수 있다.” 묻기를 “무슨 말 씀입니까?” “賢을 보고 親하지 않고 義를 듣고 따르지 않으며 어지러움에 처해 바로 잡을 줄 모르고 이익 앞에서 節義를 지킬 줄 모르는 것, 이를 두고 四蔽라 한다. 道가 바르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禮가 바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며 文이 바르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고 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 이를 두고 四正이라 한다.)²⁵⁾

或曰：“將處乎世，如何則可以免乎謗？”曰：“去六邪，用四尊，則可矣。”曰：“何以言之？”曰：“諫未深而謗君，交未至而責友，居未安而罪國，家不儉而罪歲，道不高而凌貴，志不定而羨富，此之謂六邪也。自尊其道，堯，舜不得而卑也。自尊其親，天下不得而誑也。自尊其已，孩孺不得而娛也。自尊其志，刀鋸不得而威也。此之謂四尊也。”(후자가 묻기를 “세속에 처하여 어찌하면 誹謗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를 “六邪를 버리고 四尊을 취하면 된다” 묻기를 “무슨 말씀인지요?” 대답하기를 “간언이 치밀치 못해 임금을 비방하며 교유가 지극하지 못해 친구를 질책하고 사는 것이 편치 못해 나라를 닦하고 집안이 근검치 못하면서 작황을 닦하고 道가 높지 못하면서 고귀한 자를 욕하고 뜻을 세우지 않고 富를 부러워하는 것, 이것이 六邪이다. 스스로 道를 존중한다면 堯舜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부모를 존중한다면 천하가 퇴출치 못할 것이며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면 어린이도 희롱당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그 뜻을 존중하면 형틀도 위협치 못할 것이니, 이것이 四尊이다.)²⁶⁾

民之性多暴，聖人導之以其仁；民性多逆，聖人導之以其義；民性多縱，聖人導之以其禮；民性多愚，聖人導之以其智；民性多妄，聖人導之以其信。若然者，聖人導之以天下，賢人導之於國，衆人導之於家。後之人反導爲取，反取爲奪，故取天下以仁，得天下而不仁矣；取國以義，得國而不義矣；取名位以禮，得名

25) 上同

26) 上同

位而不禮矣; 取權勢以智, 得權勢而不智矣; 取朋友以信, 得朋友而不信矣. 堯舜導而得也, 非取也, 得之而仁; 殷, 周取而得也, 得之亦仁. 吾謂自巨君, 孟德已後, 行仁義禮智者, 皆奪而得者也. 悲夫 (백성의 본성은 多暴하여 聖인이 仁으로써 이끌었고 백성의 본성은 多逆하니 聖인이 義로써 이끌었고 백성의 본성은 많이 방종하니 聖인이 道로써 이끌었고 백성의 본성은 많이 우매하니 聖인이 智로써 이끌었고 백성의 본성은 많이 허망하니 聖인이 仁으로써 이끌었다. 이처럼 聖人は 천하를 인도하고 賢人は 나라를 인도하며 보통사람은 가정에서 인도한다. 후인들은 인도함을 비껴 취하였고 취함을 거슬러 빼앗았다. 그래서 仁으로 천하를 취하여 천하를 얻은 다음에는 不仁하였고 義로써 국가를 취하여, 나라를 얻은 다음에는 의롭지 못했고 禮로써 명예와 지위를 취하여, 명예와 지위를 얻은 다음 禮를 갖추지 않았으며 지혜로 권세를 취하여, 권세를 얻은 다음에는 지혜롭지 못하였고 신의로 친구를 취하여 친구를 얻은 다음에는 신의롭지 못하였다. 堯舜이 인도하여 (천하를) 얻은 것은 강제로 취한 것이 아니라 仁으로써 얻은 것이다. 殷과 周가 취하여 얻은 것은 仁으로써 얻은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巨君 (王莽), 曹操 이후 仁, 義, 禮, 智를 행하는 자 모두 빼앗아서 얻은 것이니 슬프도다.)²⁷⁾

《鹿門子》에 수록된 60여편의 小品文들은 일정한 규칙이나 體裁 없이 작품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여타의 小品文들에 비해 편폭이 특히 짧다는 점이 두드러지며 그러한 전체적 경향 가운데 글자 수가 열자도 안되는 작품으로부터 약 400여자에 이르는 작품까지 편폭의 장단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60여편의 작품들은 독립적 篇名조차 없는데 이러한 점들은 모두 별다른 제한없이, 다소 즉흥적으로 붓가는 대로 작품을 완성하는 小品文 본연의 특징을 반영했다 할 만하다. 그러나 皮日休의 小品文은 혼란한 시대상을 극명히 반영하는 한편 많은 수사와 형상화 등의 문학적 수법을 동원하여 문학예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상으로 皮日休 小品文의 형식적 특징으로, 편폭이 전반적으로 짧으며 또한 편폭의 장단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다.

27) 上同

皮日休 小品文의 또 다른 형식적 특징은 文體 方面에서 찾을 수 있다. 徐師曾이 《文體明辨·序》에서 “夫文章之有體裁”라 했듯이 고대 문인들은 산문 창작 시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문체를 정한 후 해당 문체의 體式을 준수하였다. 그러나 上述하였듯이 小品文은 작가의 일시적인 감흥이나 혹은 특정 事案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을 어떠한 형식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스럽게 쓴 短形의 산문이다. 그러므로 小品文이란 기본적으로 論, 說, 傳, 記, 碑誌, 箴銘 등 전통적인 문체의 각종 속박에서 자유로운 글이 되어야 한다. 이점은 모든 小品文의 기본적인 성질이므로 皮日休 소품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小品文 역시 고대 산문의 일종이면서 전통적인 산문과는 전혀 다른 小品文 만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皮日休의 소품집이라 볼 수 있는 《鹿門子》에 수록된 60여편의 작품은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편명도 없고 형식이나 내용상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스럽게 쓴 단형의 산문으로 전통적인 과거의 산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鹿門子》에 수록된 작품 이외에 독립 작품으로 창작된 小品文들도 과연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皮日休의 산문은 대략 200여편에 이르는데 論, 序, 書, 記, 傳 등의 전통 文體名을 지닌 작품 외에 아예 편명이 없거나 雜題로 된 작품이 거의 과반수에 이른다. 그리고 전통 문체의 이름으로 지어진 작품이라 하더라도 전통 文體의 엄격한 體式을 따르지 않은 작품이 많다. 그럼 雜題 및 전통 문체의 명칭을 지닌 小品文을 한 작품씩 살펴보자.

士有潔其處, 介其止於世者. 行以古聖人, 止以古聖人. 不顧今之是非, 不隨衆之毀譽. 雖必不合於祿利, 適乎道而已矣. 要以今是我之非, 我非今之是. 彼知於我者, 聞毀適足譽; 不知我者, 聞譽適足毀. 昧然不顧其是非毀譽者用之. 嗚呼! 士之道, 得不顧其是非毀譽者用之. 則天下之治, 不啻半於淳古矣. 今之所譽者, 處以古聖人, 以今達者, 聞是則進, 聞非則退. 有愛者聞毀而疎之, 有不合者聞譽而洽之. 故道不加於世, 業鮮異於衆. 則其人質質於祿利, 嚙嚙於朝廷. 望天下之治, 不啻於淳古也, 難矣哉! (선비는 그 거처하는 곳을 깨끗이

하고 세상에서 머무름에 바르고 곧아야 한다. 행함에 옛 성인에 의거하고 머무름에 옛 성인에 의하며 오늘날의 是非에 연연하지 않고 대중의 비방과 칭찬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비록 녹봉과 이익에는 반드시 영합하지 못해도 道에 적합하면 될 뿐이다. 요는 오늘날 옳은 것이 나에게서 그른 것이고 나에게서 그른 것이 오늘날에는 옳다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라면 험뜯음을 듣고 죽히 칭찬하게 될 것이요 나를 모르는 자는 칭찬함을 듣고도 비방을 할 것이다. 혼미하게도 그 시비와 비난, 칭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세속을 따르고 있다. 아! 선비의 道가 그 시비와 비난, 칭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세속의 따름을 취하니 천하의 다스림은 옛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다. 오늘날 칭찬하는 자는 옛 성인에 근거하면서 오늘날의 세속에 통달한 자는 옳다고 들으면 나아가고 틀리다고 들으면 물러서며 아끼는 사람이 비방을 들으면 그를 멀리하고 타당하지 못한 자라도 그가 칭찬을 들으면 그와 영합한다. 옛 도가 오늘날 보태지지 못하고 業이 평범한 무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녹봉과 이익에 경솔히 만족하면서 朝廷에서 득의하니 천하의 다스려짐을 바라다해도 옛날과는 다르니 어렵다.)²⁸⁾

본 작품은 《皮子文藪》卷五에 수록된 <獨行>인데 그 내용은, 오늘날 소위 선비라 일컬어지는 자들이 是非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혼란한 시대의 그릇된 세속을 따르며 녹봉과 이익에 만족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朝廷에서 得意하니 세상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獨行>은 당시 선비나 관리 등 지식인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그릇된 풍조를 비판한 작품으로 날카로운 논조가 두드러지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 본 다른 小品文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전통 문체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창작한 雜著이다. 그럼 다음으로 전통 문체인 傳體 작품 한편을 살펴보자.

趙氏女, 山陽之鹽山人. 其父質鹽, 盜出其息, 不納有司賦. 官捕得, 法當死. 簿已伏, 就刑有日矣. 趙氏女求見鹽鐵官, 泣懇于庭曰: “某七歲而母亡, 蒙父私

28) 《皮子文藪》卷五 <獨行>

盜官利，衣食某身，爲生厚矣。今父罪根露，某當隨坐法，若不可，官能原乎？原之不能，請隨坐之。”法官清河崔據義之，因爲減死論。趙氏大泣曰：“某之身，前則父所育，今則官所賜，願去髮學釋氏，以報官德。”自以女子之言難信，因出利刃於懷，立截其耳，以盟必然。崔益義之，竟全其父命。趙氏侍父刑疾愈，因請歸浮屠氏舍。日休曰：“古者救危拯禍，必先示信，至夫家全國完，則隨而乖其盟。如趙氏，一乳臭女子耳，繼死請父命，孝也，自刑以盟言，信也。秉孝植信，高蹈於世，潔乎瑾瑜不足爲其貞，芬乎菡蘭不足爲其秀。與夫古之救危拯禍者遠矣。今之士，見難不立其節，見安不償其信者，其趙女之刑人乎？噫！後之脩女史者，幸無忘耶！”（趙家네 여식은 山陽 鹽山 사람이다 그 아버가 私鹽業에 종사하여 그 이익을 훔치며 관청에 세금도 내지 않았다. 官에 체포되니 법에 의하면 응당 사형감이다. 판결 문서가 완비되어 형 집행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조씨 딸이 엄철관을 만나기를 청하며 관청에서 울면서 하소연하기를 “소녀는 일곱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私鹽으로 국가의 이익을 훔쳐 衣食을 해결하여 저의 생애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죄가 저에게 연루되어 있으니 저도 응당 따라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면 선처해 주실 수 없습니까? 선처가 안된다면 저를 따라서 벌 주십시오.” 법관 清河 崔씨는 義의 따름에 근거하여 사형을 감면했다. 趙씨는 크게 울면서 말했다 “소녀는 과거 아버지의 양육이 있었고 지금은 官의 사면이 있으니 머리 깎고 중이 되어 관의 德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여자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여긴지라 예리한 칼을 가슴에서 꺼내 즉시 그 귀를 잘라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음을 맹세하였다. 趙씨는 더욱 義를 따라 그 아버의 命을 보존시켰다. 趙氏는 아버지의 형이 빨리 완료되기를 바라며 결연히 부처에 귀의하였다. 내가 말하길: “옛날에는 위기와 재난에서 구제되고자 할 때 먼저 믿음을 내보였는데 무릇 집안이나 나라가 온전해지고 나면 곧 따라서 맹세를 저버린다. 趙氏는 짓비린 내 나는 여자 아이에 불과한데도 죽을 각오로 아버의 목숨을 청하였으니 이는 孝이다. 스스로 형을 받아 말을 지켰으니 이는 신의로움이다. 孝를 지키고 신의를 심었으니 세인들을 한참 초월하였고 그 정절이 瑾瑜(美玉)만큼 고결하다해도 부족하며 그 빼어남은 菡蘭(香草)만큼 향이 난다해도 부족하다. 무릇 옛날의 위기와 재난에서 구원받고자 한 사람들 보다 훨씬 낫다. 오늘날의 선비는 어려움을 보면 절의를 세우지 않고 편안함이 보이면 신의를 저버리는네 趙氏 여식에 비하면 죄인이다. 아! 후대 여자의 史籍을 編修하는 자가 다행히 잊지 않았구나!)²⁹⁾

상기 작품은 人物 傳記인 <趙女傳>이다 그러나 정식 인물 列傳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을 지니고 있다. 우선 立傳 인물이 유명인물이 아닌 私鹽業을 하다 잡힌 罪人의 어린 딸이며, 한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지 않고 한 장면만을 포착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體式 方面에 있어서도 일반 인물 전기와 판이하게 다르다. 본 작품이 이처럼 일반적인 인물 전기와 다른 내용과 형식을 지니는 이유는 본 작품의 창작 목적이 한 인물의 일대기를 전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특정 인물의 특정 행위를 빌어 節義와 信義를 망각하는 당시의 선비들을 비판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본 작품은 柳宗元의 <種樹郭橐駝傳>과 마찬가지로 인물 전기의 형식을 빌어 작가의 사상이나 견해를 기탁한 托傳 형식의 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의 변형된 형태는 古文運動과 文體改革의 영향아래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晚唐의 小品文은 고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문체개혁의 성과를 반영한 작품들이라 말할 수 있다. 安史의 亂 이후 문인들은 문예를 통해 정치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했는데 기존 전통 문체들의 각종 규제가 문인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주장의 표현에 걸림돌이 되었으므로 고문운동을 일으켜 문체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즉 고문운동의 주안점은 文體의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현실의 각종 문제점들을 비판·지적하고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적극 피력하는데 있다. 皮日休 小品文의 주요 내용은 현실의 부조리를 풍자·비판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통적인 고대 산문 문체의 각종 제약에서 벗어남으로써 體現되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皮日休의 小品文은 고문운동의 정신과 문체개혁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⁰⁾

29) 《皮子文藪》卷八 <趙女傳>

30) 孫昌武는 《唐代古文運動通論》에서 小品文이 古文運動 가운데 가장 특출한 성과를 낸 분야인 雜文 가운데의 한 유형이며 皮日休는 晚唐의 저명한 小品文 작가라고 했다. 孫昌武, 《唐代古文運動通論》, 1983, 제330쪽. 또한 葛曉音도 《唐宋散文》에서 피일휴의 小品文이 내용과 형식에서 고문운동의 기본 정신을 계승·발전시켰다고 했으며(葛曉音, 上揚書, 제70쪽) 陳書良과 鄭憲春은 《中國小品文史》에서 晚唐의 小品文은 기본적으로 韓愈, 柳宗元이 개창한

Ⅲ. 結 論

皮日休는 陸龜蒙, 羅隱과 함께 晚唐 小品文의 3대 작가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小品文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작가가 어떠한 作法 상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한 短形의 산문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皮日休 小品文의 특징을 內容, 思想 및 形式 方面으로 나눠 간단히 살펴 보았다. 내용적으로는 晚唐 小品文의 일반적 경향이 그러하듯 皮日休의 小品文도 晚唐의 혼란상을 질책·비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皮日休는 당시의 혼란이 지배계층의 부패와 무능에 있다고 믿었기에 그의 小品文에는 황제를 포함한 지배계층들에 대한 대담한 풍자가 두드러진다. 皮日休 小品文의 사상적 특징으로는 民本思想을 들 수 있다. 皮日休는 국가의 주인이 백성이며 관리를 비롯한 지배계층은 모두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황제는 백성에 의해 임용되고 황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백성에 의해 폐위당함은 물론 국가의 주요 시책도 백성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상의 특징인 지배계층에 대한 강렬한 비판과 질책도 이러한 민본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봉건시대에 이처럼 확고하고 투철하게 민본사상을 견지함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므로 그의 민본사상은 文學史나 思想史的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皮日休의 小品文은 일단 모든 小品文이 그렇듯이 편폭이 짧다. 그런데 皮日休의 小品文은 그러한 경향 가운데 열자 미만에서 부터 수백자에 이르는 다양한 편폭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역대 小品文 작가 가운데 皮日休 만큼 다양한 편폭의 小品文을 창작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이점은 皮日休 小品文만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또한 小品文은 원래 어떠한 형식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短形의 산문이기에 전통 文體의 각종 구속과 규범으로부터 자

古文運動의 노선 위에서 발전했다고 했다. 陳書良, 鄭憲春, 《中國小品文史》, 桂冠圖書(臺北), 2001, 131 쪽

유로운 문학이다. 특히 晚唐시기 小品文은 文體改革을 부르짖으며 크게 흥기하였던 中唐의 古文運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것은 晚唐小品文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을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皮日休의 小品文도 정치사회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 내용상의 특징과 그것이 전통 文體의 각종 규제로부터 탈피함으로써 體現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古文運動의 정신과 文體改革의 성과를 계승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

- 《全唐文》，中華書局，2001.
- 《資治通鑑》，中華書局，1996.
- 皮日休，《皮子文藪》，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 皮日休，《皮子文藪》，四部叢刊集部，涵芬樓，1934.
- 皮日休，《鹿門子》，百部叢書集成，藝文印書館(發行年度未詳)
- 田啓文，《晚唐諷刺小品之風貌》，臺北：文津出版社，2004.
- 郭豫衡，《中國散文史》，上海古籍出版社，2002.
- 陳書良，鄭憲春，《中國小品文史》，臺北：桂冠圖書股份有限公司，2001.
- 羅宗強，《隋唐五代文學思想史》，中華書局，1999.
- (南朝·宋) 劉義慶著，張萬起，劉尚慈 譯注，《世說新語譯注》，中華書局，1998.
- 莫道才，沈偉東 選注，《皮鹿門小品》，文化藝術出版社，1997.
- 寥士杰，樊修章 選注，《晚唐小品文選注》，上海古籍出版社，1995.
- 謝保成，《中國隋唐五代政治史》，人民出版社，1994.
- 林非 著，김혜준 譯，《중국현대산문사》，1993.
- 葛曉音，《唐宋散文》，國文天地(臺北)，1990.
- 孫昌武，《唐代古文運動通論》，百花文藝出版社，1983.
- 李福標，〈皮日休散文體管窺〉，《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0，

제30권, 제4기.

張德建, <小品的突破與局限>(從文體演變的角度看晚明小品的價值, 《中國文學研究》, 2000.

云惟利, <小品散文類別研究>,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 제2기

趙俊, <晚唐思想界三杰>,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1999, 제6기.

李濟雨, <1930년대 '小品文爭論'을 통해서 본 晚明小品の 인식과 평가>, 《中國研究》, 1996, vol 18.

黃瑋喜, <皮日休의 文學觀>, 《中國語文論叢》, 1995, 8집.

黃瑋喜, <皮日休 思想의 研究>, 《中國語文論叢》, 1995, 9집.

張嘯虎, <論唐末小品文的鋒芒與文采>, 《求索》, 1984, 제3기

王洲明, <泥塘里的光彩和鋒芒>(談晚唐小品文), 《文史知識》, 1983, 제8기.

<中文提要>

皮日休是晚唐小品文的巨擘。所謂小品文是散文中比較簡短而有特別情趣和風致的一種。本文把皮日休小品文的內容，思想以及形式方面的特徵分析一下了。首先在內容方面，皮日休的小品文主要批判諷刺支配階層的無能和腐敗。特別他連對皇帝也進行加以辛辣諷刺。第二，思想方面，皮日休的小品文體現他的民本思想。皮日休認為支配階級是為老百姓存在的，而且君主的任用和退出都是由老百姓決定的。皮日休所堅持的民本思想就讓他能夠創作針對封建時代最高統治者皇帝與官吏等支配階級進行加以辛辣諷刺的小品文。在形式方面皮日休的小品文體裁多樣。這一點可以說是皮日休小品文的特徵。考慮皮日休小品文的內容與形式方面的特徵，我們知道皮日休小品文就繼承發展了古文運動的基本精神。

주제어: 皮日休, 晚唐, 小品文, 諷刺, 民本思想, 體裁多樣, 古文運動